

스포츠, 내셔널리즘 그리고 붉은악마

- '붉은 악마' 담론의 서로 다른 민족주의

강권찬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인터넷을 통해 결성된 10만 명의 거대한 조직은 완벽하게 수평적인 연대를 이룬다. 홈페이지에서 경기관람 신청을 하면 사무국이 추첨해서 몇 개 조로 나눠 참가자 명단을 발표한다. 회원 중 여행업이나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응원단의 비행기 예약과 교통·숙박 일정을 담당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원자 중에 뽑힌 각 조 조장들은 인원 확인, 차량이나 숙소 배치 등 각종 굵은일을 도맡아 한다. 물론 혜택은 없다. 30대 이상이 조직운영의 큰 책임을 맡고 있지만 주축은 20대와 10대다. 이렇게 인터넷의 자양분을 먹고 자란 발랄한 세대들은 억지로 짜인 위계를 거부한다.

이들의 공식적이 조직 이름은 '붉은 악마'다.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 사회현상을 '붉은 악마 현상'이라 부른다. 월드컵보다 더 흥미를 유발시키는 조직, 아니 현상을 통해 이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풀어가려 한다.

1. 붉은 악마 그 후

카니발 그리고 붉은 광장

전국에서 700만이 모였다는 4강 전날, '붉은 광장'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얻게 된 시청 앞 광장, 그리고 전국 동시다발적인 거리 카니발. 조용한 아침의 나라의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 나왔다. 승리의 기쁨이 오랫동안 억눌려온 지루하고 피곤한 삶의 신경계를 자극해서일까. 적어도 축구! 또는 월드컵에서의 놀랄만한 승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과잉된 감정의 분출. 그리고 거리와 광장과의 '열렬한' 만남. 몸의 자유는 함께 한다는 쾌락을 일깨우고 축제는 그렇게 감각스럽게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이걸 찻검곳에 비유했다. 히딩크와 대표팀은 졸지에 무당이 되었다. 그리고 이 제의 참석한 거대한 군중들. 제의를 통한 환의와 희열, 또는 해탈....그래서 찻검곳이다.

새로운 현상? 또는 익숙한 반복?

이제 전문가들이 바빠질 차례가 온 것 같다. 국민적 유전자부터 사회 병리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원인을 찾기에 분주하다. 그리고는 결론도 한결 같다. 붉은 악마 현상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정치권의 새로운 통합에 대한 비전 제시를 주문한다. 국민통합, 국민적 에너르기의 발산, 다이내믹 코리아...그래서 이제 '경제4강'으로 가져가고 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여기에 4회 우승한 브라질을 예로 들며 축구는 축구일뿐 현실은 냉정하더라는 반론은 찬양 고무된 대!한민국에 의해 웅단폭격을 맞는다.

누군가는 한국인은 '뜨거운 흥의 민족'이라고 한다. "한국 국민성의 원형질에는 단결성과

열정이 내포돼 있으며 한국인의 유전자 속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 는 것이다. 민족원형질론? 아니면 민족 유전자론? 19세기의 인종주의의 21세기 버전..유전자 어쩌구 저쩌구... 특히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고 자발적 동기만 유발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국민성이 한국인에게 잠재돼 있다” 며 외환위기 이후의 ‘금모으기 운동’ 등을 그 증거로 들이민다. 아무튼 대단한 민족이다. 그런 특성이 기업경영 현장에선 ‘신바람 경영’ 으로, 경제성장 측면에서는 압축 성장으로, 문화면에선 한류(韓流) 열풍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누구는 집단 히스테리로 ‘정신을 분석’해 냈다. 너나 없이 받아온 스트레스를 푸는 집단 카타르시스(katharsis)의 과정” 이라는 것이고 급속한 근대화·민주화 과정에서 비롯된 집단 히스테리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6월의 상징, 그리고 이데올로기 투쟁

이제 6월에는 많은 상징이 있게 되었다. 전쟁, 민주화, 빨간 티, Be the Reds, 태극기, 대한민국.

자극적인 상징들 속에서 사람들은(또는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보고, 혹은 보고자 하는 것을 끌어내려 한다. 빨간색에서 레드컴플렉스의 해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를, 그리고 태극기 패션에서 경건주의의 쇠퇴를 이야기한다.

아직 공유된 코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리되었다면 기록될 正史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아직은 담론을 둘러싼 해석투쟁, 正史가 되기 위한 서로 다른 코드의 이데올로기 투쟁의 시기인 것이다.

시청암의 태극기가 6월항쟁을 계승한 민주와 통일의 상징이 될지, 30대 빨갱이를 때려잡는 20대와 50대의 보수 연대의 상징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던 “be the reds”가 단순히 ‘붉은 악마가 되자’로 머물지, 레드컴플렉스의 극복을 상징하는 ‘빨갱이가 되자’로 해석될지 모르는 일처럼 말이다.

‘붉은 악마 현상’의 기저를 움직이고 있는 이데올로기,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또한 필자에게는 그것을 분석할 능력도 없다. ‘붉은 악마 현상’이 측구에 ‘Nation’(국가, 국민, 또는 민족)을 대입한 단순 방정식을 둘러싼 두가지 상반된 논쟁을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민족주의와 파시즘이 제목인 이유가 그것이다. 둘은 사실 동일한 궤론에 이르고 있다. 둘다 민족적 또는 국가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가치를 개입시키면서 전자는 ‘좋은 가치’ 후자는 ‘나쁜 가치’라는 전제를 담고 있다. 이 두가지 전제가 개입된 민족주의 담론이 붉은 악마 담론을 둘러싸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민족주의에 대한 한국적 지형이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건정한 목적이다. 따라서 이 글은 붉은 악마를 벨려썬 민족주의와 그 반배판에 대한 짧은 소고가 될 것이다.

2. 스포츠 내셔널리즘

스포츠와 정치의 만남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강력한 군대양성, 이데올로기나 정리체계 강화로 스포츠가 이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손기정 선수의 옷에 있던 일장기를 사진에서 말소한 사건이나, 19세기 스포츠를 통하여 국민단합을 시도한 체조의 도입이 그 예이다.

복잡한 사회에 불안, 고독, 공핍에 허덕이는 대중은 이성을 잃고 현실 정치에 대한 좌절, 무력감, 절망감 등을 느낀다.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보다는 연극, 음악 또는 축구, 야구, 권투, 레스링 등 스포츠에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복잡한 사회에서 무력감에 빠진 대중에게 정치권력이 선진국가 건설, 일등국민 창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스포츠를 이용하는 것이다. 스포츠 정치화의 매체로 가정과 학교도 있으나 현대사회에 광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매스컴을 통한 조작이다. 정치와 스포츠의 결합은 당연한 시대적인 요청이요, 국가적인 사명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근대적인 체육과 스포츠가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욱 필요한데 그 성격은 스포츠 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축구와 정치의 만남

축구가 세계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축구라는 종목은 다 종목에 비해 규정이 단순하다. 손으로만 건드리지 않으면 자유자재로 공을 다룰 수 있는 등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규정도 단순하다는 점은 축구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크기와 규모에 상관없이 축구공과 공터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가능한 축구의 특성 역시 축구를 전 인류의 스포츠로 만든 이유이다.

성인 남자치고 어릴 적 축구 한번 안 해 본 사람은 없다. 이처럼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스포츠이다 보니, 가장 많은 팬과 관객을 확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단 한 번의 승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극적인 요소도 세계인들을 축구에 열광케 만든 요인이다. 여기에서 국가 대표팀끼리 겨루는 월드컵 축구대회는 각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축구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도 흥분과 열기에 휩싸이게 한다.

“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세계화의 큰 흐름속에 동참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저변에는 항상 민족과 국가를 자각하고 염려하는 민족주의가 자리잡고 있었다”며 “월드컵이라는 국가대항 스포츠를 계기로 민족주의가 건전한 방향으로 표출된 결과가 바로 응원문화”라고 설명하든,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길거리 응원은 전쟁과 대립으로 점철된 20세기의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21세기에도 여전히 그 위력과 영향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보여주었다”며 “하지만 과거와 달리 민족주의가 성숙한 시민사회를 토대로 표출돼 그 성격이 매우 개방적이고 건전하게 변했다”고 진단하던 “우리 대표팀 경기에서는 개인들은 격렬한 응원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됐다는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평소시의 소외감을 떨쳐버린다”고 하던간에 축구를 통해 더 집단적 가치를 투영시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축구가 아니라 축구를 통해 이입된 감정이다. 그리고 스포츠 특히 축구는 이러한 집단적 감정의 이입을 가장 효과적으로, 또는 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기제라는 것이다. 국가간 시합을 통해 드러나는 민족주의 논리는 사회 갈등을 거침으로 해소하고 허위의 통합을 형성하며, 대중매체와 결합한 보는 스포츠로서의 기능은 상업화의 침단을 달린다.

스포츠 내셔널리즘의 발현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또 다른 아이러니는 중국의 태도이다.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 비교

해 볼 때, 중국이 보여준 일련의 사례는 중국인이 월드컵에 이입한 감정의 결과물이 잘 드러난다. 그리고 그 감정이 이입이 어떠한 집단적 결과물인지 잘 드러난다. 국가, 민족, 그리고 국민의 집단적 실체는 축구를 통해 상상되고 순위가 매겨진다. 그리고 미디어에 의해 확산된다. 그것은 공격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국민통합과 국민에너지의 분출이라는 순기능에 앞서 그 역기능을 경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6강전과 8강전에서 세계의 강호들인 이탈리아와 스페인마저 무너뜨리자 중국 언론들의 복잡한 심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중국 내에서 월드컵 특집방송을 진행하는 <채널5>의 남녀 사회자와 해설위원은 입을 모아 “한국축구는 이해할 수 없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특히 16강전에서 이탈리아의 항의가 빗발치자 는 생중계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이탈리아 선수가 잔디구장에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는 모습과 심판이 이탈리아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들이대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심판의 오심을 되풀이해서 지적했다.

이 경기 뒤부터 를 비롯한 방송은 물론 신문 등 인쇄매체까지 가담해 유럽 일부 언론의 음모론을 가감 없이 집중 보도했다. <베이징르바오>는 “심판 갈수록 지나쳐”라는 제목으로 심판의 오심을 질책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아울러 스페인 선수들의 눈물, 감독이 심판을 향해 항의하는 사진 밑에 “눈이 있나 없나”라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중국의 축구에 대한 열정은 어느 나라 못지 않다. 교민들은 부진한 중국팀에 대한 분노가 한국팀에 대한 질투로 둔갑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축구때문이 아닌 것이다. 서양에게 대패한 중국과 서양을 이겨버린 한국과의 사이에서 초라해진 대 중화민족의 상처받은 자존심과 상처받아왔던 열등감의 발로였던 것이다.

반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많은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이 한국팀을 응원하였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시아의 자존심’이라는 카드섹션이 감동받기도 한다. 그들은 유럽의 강팀에 대항하는 남미팀들을 전통적으로 응원해 왔다고 한다. 그러다가 유럽 강호를 하나씩 격파해 가는 한국팀을 만나게 된 것이다. 한국이 하면 자신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유럽을 능가할 수 있다는 자심감과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다. 이것도 당연히 축구 이야기가 아니다. 축구에 이입된 감정은 국민적, 또는 민족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오랫동안 한국은 스포츠 민족주의에 길들여져 있었다. 박찬호는 일본의 메이저리그 진출선수와 싸워서 진다는 것은 상당한 허탈감을 불러일으킨다. 박세리는 한국민족의 뛰어난 저력을 세계에 알렸고 국난극복의 모델이 되었다. 즐기는 게임은 여전히 소수의 차지일 뿐이다. 스포츠를 통한 열광적인 민족주의의 소비는 선수자체 또는 경기자체에 대한 관심을 항상 상회한다.

3. 국가주의 VS 공동체주의

민족주의의 두가지 경로

민족주의는 사람들의 자발성에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민족주의는 이러한 명분으로서 최상의 것이었다. ‘민족의 승리’라는 명분은 고통질서를 극복할 수 있었고, 거리행진을 할 때 연도의 어른들의 박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됨과 자부심을 주었다. 너무나 명분이 확실하기에 전혀 위험이 없는, 그리고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통해 더욱 증폭되는 즐거움. 민

족주의는 사람들을 불러모았고, 그들을 어울리게 했으며, 어울림을 통해 하나되는 즐거움을 제공했다.

연속되는 대표팀의 승리와 어울림의 미학은 곧 '민족적 자긍심'으로 전화되었다. 패배적, 방어적 민족주의의 역사를 떨구어내고 민족적 자긍심을 경험하게 된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우리는 강팀'임을 확인하고, 이제는 선수들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패배주의적 습성을 벗어나 자신감 있게 세상과 맞서 싸우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식민근성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그리고 식민의 근성을 강요하는 내부의 논리에 자신있게 싸워나가자는 것이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20대들의 애국주의에 감동을 받기도 한다. 대국기 사랑이 지극하며 칭찬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20대의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반공으로 승화시켜나가야 한다고도 한다. 이른바 20대의 민족적 자긍심과 반김정일주의의 결합을 주장하는 것이다.

민족적 자긍심과 결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역시 규정될 수 없다. 민족주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국가주의와 결합하여 팽창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 수도 있고, 시민권과 결합하여 보편적인 시민적 민족주의의 양상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부국강병과 경제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 세계화시대에 약소국간의 연대를 지향하고, 다양성의 공존을 지향하는 이념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민족주의의 두가지를 나는 여기서 국가주의와 공동체주의로 나누어 구분하고자 한다. 후자가 국가주의의 극단적 형태라면 전자는 공동체주의의 담론이라 할 수 있다.

두가지가 충돌한다는 것은 지난한 한국의 역사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주의의 역사적 구조

한국의 시민사회는 서구와는 달리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적 체험과 분단상황으로 인하여 더욱 강화된 강력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국가우선주의 + 국가중심주의 + 국가건설주의 + 국수주의)의 정치문화 속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출발부터 상당한 구조적 제약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국가는 수시로 공권력이라는 막강한 법적 무기를 구사하거나, 때로는 국제스포츠대회의 영광된 우승이나 위대한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 혹은 북한의 남침위협이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군사대국화 등을 내세우면서, 아직도 신민의식을 탈피하지 못한 많은 한국인들을 국가의 권위에 순응하는 성실한 세금납부자, 양순한 준법주의자, 자발적인 국방의 무자 등으로 만족하게 하거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애국심의 소지자로 치켜 올리며 영원히 국가중심적 사고와 행위의 틀에 얽어 두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국가건설(State Building)이 상당히 건전되기까지는 국가주의가 하나의 사회적 중심가치로서 수용되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남북한 모두 개별적으로는 이미 국가건설을 완료한 셈이지만 여전히 통일국가의 건설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지배적 권력집단은 필요에 따라서 국가주의를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과거 군부독재 정권시절 수시로 남침의 위협 내지 전쟁발발의 가능성을 빙자하여, 체제비판세력을 불순 용공분자로 낙인찍어 동요하는 민심을 수습하는 정치적 전략을 구사하였다. 특히 냉전적 분단상황은 전쟁의 재발(再發)이라는 극한적인 파멸시대와 직접

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억제자 내지 전쟁수행자로서 국가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시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다. 역사적으로도 국가존립의 절대적 필요성은 항상 전쟁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국가정치의 최우선적 목표로서 남북통일이라는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지상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통일의 과업이 완수될 때까지는 국가건설이라는 미완의 국가주의적 프로젝트에 구속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까지 통일론의 대세를 이루었던 통일지상주의는 하나의 단일한 통일국가라는 국가승배적 가치를 은연중에 확산, 조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 모두 세계에 유례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국가통치체제를 수립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어떤 형태로 통일이 성취되든 그 결과는 역시 또 하나의 강고한 국가체제의 성립으로 귀결될 것이다.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상정하는 통일된 한국의 모습이란 강력한 단일 중심의 국가체제이지, 느슨하고도 자유롭게 결합된 연방주의체제는 결코 아닌 것 같다. 나아가 분단 상황하에 있는 남한에서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국가주의적 권위와 기율에 순응하는 훈련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한국의 역사는 수많은 외침(外侵)에 저항하는 민족투쟁의 역사이었다. 특히 조선말에는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민족적, 민족적 각성과 저항이 엄청나게 고조되었으며, 봉건적 사회질서를 대체하려는 시민사회적 욕구 또한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는 시민사회의 구축에 대한 관심보다는 민족독립이라는 민족주의적 이념을 한국사회에 매우 강력하게 확산시켜 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지금까지도 반일(反日)의식과 통일염원이 줄기차게 한국인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 스포츠대회 우승의 감격을 갈구하는 스포츠민족주의가 전통적인 국가주의와 끊임없이 상호보강 작용을 하고 있다.

공동체주의의 지향?

붉은 악마는 무엇보다 자발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과거 한국의 국가주의가 보여주었던 위로부터의 공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보여준 자발성과 열정을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공동체주의의 핵심주장이다.

이것은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민족주의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성숙이라는 중요한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공동체주의는 엄청난 대중적 에너지의 폭발을 국가주의와 잘못된 애국심의 이상땡창이라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물론 표면적으로 붉은 악마가 민족주의의 발호라는 것에는 공동체주의도 수긍한다.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가 우선 국가주의의 냄새를 물씬 풍기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더불어 이미 거의 사회적 존재의의를 상실하다시피 한 애국가·대극기 등 낡은 국민국가적 상징들이 다시 복권되는 현상, 그리고 어느 응원인파 속에서도 나오는 “내가 한국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라는 감격 어린 진술 등 어느 하나 국가주의 ‘자발적 확산’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으로 ‘민족주의적 광기’라고 불러도 마땅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대한민국’, ‘대극기’, ‘애국가’라는 기표들과 애국주의·국가주의라는 기의 사이에 일정한 ‘미끄러짐’, 즉 불일치를 공동체주의는 포착해내고 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비롯하여 그야말로 전국 방방곡곡에 모인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애국가와 대극

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엄숙 경건한 최대 상징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합행동을 묶어주는 최소 상징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이 격렬한 카니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낡은 집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잃어버린 존재의 거처로서의 공동체, 최소한의 분열되지 않은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이들의 의식과 행동은 외면적 격렬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배타적인 국가주의의 소산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자기 보존적인 공동체주의의 소산에 가까운 것이다.

4. 민족주의에의 경고 - 붉은 악마의 이면

파시즘의 경우

국가주의와 공동체주의간의 해석전쟁이 민족주의의 긍정성을 인정하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면 그 정반대편에서는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인식이 존재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이 발행하는 <인권하루소식> 6월24일자에 실린 "'붉은악마'를 부추기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은 삼시간에 인터넷의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월드컵 열기에 나라가 온통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운을 뗀 이 논평은 "'붉은 악마' 현상이 바야흐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응원 열기는 결코 자발적인 현상이 아닌 거대 매스컴에 의한 대중동원현상"이며 "체제에 대한 순응과 정치적 무관심, 인간의 주체성을 죽이는 군중심리가 있을 뿐, '붉은 악마' 현상은 파시즘을 가능케 하는 병적인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당연히 게시판은 찢은 대부분의 네티즌은 "500만의 자발적 응원을 매도하지 말라"며 인권운동사랑방에 거센 항의의 뜻을 표했으며 한때 홈페이지가 접속불능이 되기도 하였다.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이나 월드컵에 대한 다양한 이견은 가려진 채 언론과 자본에 의해 '하나의 축제'로 꼭 즐겨야만 되는 행사인 양 애기되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장 절정인 축제의 날에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왔다.

붉은 악마는 것은 훈육된 집단적 제식훈련 문화의 반영이며 문화적 다양성의 부족을 국민주의가 메꾼데서 오는 결과이며 그것이 국민 혹은 민족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는 인식이다.

'국가대표'에 대한 과도한 열광은 결국 길거리에서 냉소적인 젊은이들이 애국가4절까지 복창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걸 '민족적 자부심'의 발로나 '공동체 정신의 회복'으로 '오버'해서 찬양하는 기성세대는 공동체로부터 억압받은 한국 젊은 세대의 일탈과 해방의식마저 국민 의식에 가두고 있다고 비판한다.

민족주의에 대한 경고

민족주의를 파시즘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온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은, 그 뜻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위험하다고 본다. 하나가 될 수도 없으며 하나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무서운 획일적 집단주의 세계관이 한국사람들 정신의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외국인들이 한국 응원단의 '일사분란함'에 대해 느끼는 '전율'도 아마도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온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룩한 쾌거’는 수사학으로 관참지만 사실과는 어긋난다. ‘온국민’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선동 속에서 수많은 사회적 국외자 그리고 ‘국민’과 관계없는 수많은 집단의 목소리를 은폐시키기 때문이다. 국민은 매우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며 그 외의 집단적 규정 및 정체성은 그 밑의 하위단위로 인식되거나 사라진다. 무슨 큰 사건만 터지면, 다양하고 모순적인 집단 및 개인들의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즉각 ‘국민’으로 적당히 뭉뚱그려버리며 그 안에 모든 것을 녹여버리려는 국가주의적 충동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것은 추상적 애국심과 민족적 자부심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의 성원,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국민’을 강조한다.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을 ‘온국민’ 혹은 ‘한마음 한뜻’의 이름으로 묶고 싶어하는 언론과 국가의 욕망, 또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충동에 깔려있는 것은 지독하게 획일적인 집단주의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뤄낸 16강’이라는 구호는 사실 국민이 하나의 동질적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내셔널리즘의 표현이다. 거기서 국가, 국민, 사회는 하나로 혼용되며 거기서 개인과 이웃사이더라는 실종되는 것이다.

5. 내셔널리즘, 그리고 그후

한국 근대 민족주의의 특징은 저항주의적 민족주의의이며, 항일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체육, 스포츠는 민족주의의 이념이 강력히 내포되었으며, 일제에 항거하기 위한 저항주의적 스포츠 내셔널리즘이 되었다. 미디어는 박찬호 관련 다큐멘터리와, 심지어는 8.15 광복 특집의 주인공으로 박찬호를 방영하기도 했다. 붉은 악마 현상이 매스컴에 의해 보도되는 것도 이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붉은 악마 현상이 스포츠 민족주의와 본질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자발성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코드이다. 참여와 자발성, 그리고 자부심. 이것은 민족주의의 코드를 포함하는 세대적 현상이다.

민주화이후의 세대들, 첨단 기술과 정보통신으로 무장한 세대,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줄 알며 이미 한류에 중심이 된 문화세대. 이들의 멘탈리티는 20세기의 민족주의적 담론과는 분명 다르다. 여전히 20세기의 역사가 우리 뇌리에 음각해 놓은 멘탈리티로 21세기를 살며 패배와 좌절, 또는 분열과 소외에 익숙한 것은 이들 세대의 논리가 아니다.

붉은 악마 현상은 새로운 민족주의의 진로를 밝혀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민족주의 논쟁은 곧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주고 있다.

국가주의, 공동체주의, 또는 파시즘에 대한 경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새로운 세대에 의해 새롭게 재해석 될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것이 더 이상 동원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민족주의로의 전진을 눈앞에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